

화력발전, 녹색에너지 사업 박차

한국전력, 조력·풍력발전 추자 확대 ... 의무할당제 도입 대응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화력발전기업들이 녹색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에너지 공기업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는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전력 산하 화력발전회사들은 조력발전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부발전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 가로림만 일대에 2014년 7월까지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2km의 방조제를 축조한 뒤 520MW 규모의 발전소를 세우는 것으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해 해수를 인공 저수지에 유출입시켜 발전하는 방식이다.

서부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연료전지발전(Fuel Cell) 연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2014년까지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 세계 최대인 813MW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발전은 제주도 한경면과 성산읍에 각각 15MW, 20MW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에 나섰고 태백에서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바닷가 인근의 영흥발전소와 군산발전소 등 화력발전소 부지 3곳에 2010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2-3MW급 대형 풍력발전기 10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는 안전 등 이유로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자리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풍력발전기 설치가 쉽고 단지조성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주민반대 등의 걸림돌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6>